

기관 소개

-자조금융 활동을 시작한 배경과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, 현재 이슈와 쟁점

-배경과 활동 성과

공동체은행 빈고는 공동체 공간을 넓히고 공동체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은행.

주거 공동체인 빈집이 만들어지고 1년 뒤, 새로 만들어지는 빈집들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게 빈고.

7년이 지난 지금은 빈집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들이 연대하고 있고,

그 공동체들이 유지되고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은행의 역할

(이 자리에 함께한 부천 모두들도 빈고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)

-현재 이슈와 쟁점

국가, 기업 재단 등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

매년 내고 있는 흑자를 다시 공유지를 넓히는 데 분배하는 구조

기업의 사적 보험을 벗어나기 위한 건강보험계,

공유지를 되찾고 관리하기 위한 빈땅 트러스트

자본주의를 능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궁리하고 만들어간다.

○ 관계

- 관계(사회적자본)은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논의 : 자생성, 지역거점, 규모화 등

- 신용도 관계 속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확인(학교, 지역사회, 주거를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장단점)

- 자조금융의 지속가능성, 활성화 방안 제기 필요(가치 동의와 소통 관련 수적인 범위/한계 등)

-지역이란 개념의 상이함. 가치 기반 관계망.

-빈고가 보는 관계의 핵심은 관계를 자원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것.

-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관계를 자원으로 보게 된다. 금융 자본 대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신용 대신 신뢰를 활용하기 위해 ‘관계’를 말한다면, 관계를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빈고를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빈고가 일반 은행과 크게 다를 게 있다.

-빈고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키기 위해 관계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. 말하자면 빈집/빈고가 망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. 중요한 것은 빈고와 관계 맺어온 사람들이 빈고를 통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가. 그 경험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. 빈고가 없어져도 그 관계가 우리에게 남는다.

-결국 빈고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관계를 초과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지탱하는 것.
채무자-채권자의 관계, 예금자-금융업자의 관계를 이용자-빈고-출자자의 관계로
생산해내기를 원한다. 같이 쓰기 위해 빈고에 돈을 모으는 동시에, 같이 살기 위해 모은 돈을
잘 쓰는 그런. 그런 장치로서의 빈고.
-기부자-기부받는 자의 관계, 사용자-노동자의 관계도 마찬가지.

○ 자산화 전략

- 각 자조금융 단위의 애로사항을 취합한 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법·제도적으로
해결해야 할 것을 검토(예, 착한 건물주 인센티브제 도입 등)
- 지역 내 타 단체 및 기관, 또는 지방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자산화 전략(설계 초안) 도출
-(공급자만이 아닌 수요자가 참여하고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 필요)
- 경기도 상황(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조례 마련 등)에서 자산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그에 맞는 금융상품 설계,
자조금융의 확장을 위한 도구 개발 등 정책적 실천 방안 모색, 실천 선언 또는 후속 활동 제안
-빈고 자체가 자산화 전략으로서 시작되었다. 빈집-빈고의 과정. 공유 자산을 만들기 위한
출자.
-요 1-2년 간 지역자산화, 공동체자산화 등의 이야기가 부쩍 많아진 듯. 그럴 때 보통 요점이
되는 것은 ‘어떻게 지원받을까’인 것 같다. 돈을 모아내는 과정도 어렵고, 모을 돈도
없으니까.
-그러나 빈고는 외부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를 경계하는 편. (어용 / 위험 전가 / 관료주의적
조직 변화)
-물론 빈고의 한계. 규모. 세입 형태. 해방촌 젠트리피케이션.
-보완안: 빈땅 트러스트와 공동체주택 프로젝트

○ 거버넌스의 문제

- 거버넌스(지원조직 포함) 설계 : 정부의 지원시스템, 그리고 행정, 당사자 조직과 지원조직의 관계
- 법적 지위가 없어도 재단 및 법인과 파트너십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 필요(유연한 제도 모색)
- 기존 금융권(신협, 농협 등 금융협동조합)과의 관계, 시민단체-신협-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 설계
-빈고는 기본적으로 비법 조직. 협동조합의 형태이긴 한데 법적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.
그러나 불법은 아니다.
-빈고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생각하나. 요구의 정치와 변혁의 정치라는 개념을 생각해볼 수
있을 것 같다.
-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 국가/기존 금융권 등 결정하고 분배하는 위치에 있는
이들에게 자원을 요청하는 게 요구의 정치. 어차피 분배될 자원이라면 더 나은 데
분배되어야 하지 않나 주장하는 것. 지원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.
-그것의 기반은 어떤 취약 계층을 대표한다는 것. 청년이든 주거빈곤 계층이든 지역사회든.
그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단체들과 정부를 연결하기 위해/그들의

요구를 법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중간 매개 조직들이 만들어진다.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.

-요구의 정치는 이미 주어진 조건, 이미 주어진 세계의 한계 안에서 협상하고, 계산하며 몫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.

-변혁의 정치란 이미 주어진 조건에 균열을 내고 부정하는 것.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만드는 행위. 그 가능성은 주어진 법의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고, 끊임없이 법의 언어 속에 포획하고자 하는 국가제도-거버넌스와 친해질 수 없다.

-요구의 정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라 생각.

-변혁의 정치란 무엇보다 내가 있는 곳, 내가 맺는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,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생성하는 작업이라 생각.

-일할 때는 열심히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퇴근 후에는 기존 삶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이상하지 않나. 퇴근 후의 삶이 그의 사적인 선택이라는 영역으로만 남겨져 있는 건 이상하지 않나.

-요구의 정치란 지나치게 많고 변혁의 정치란 찾아보기 어렵다. 빈고에서는 후자에 집중하려 함.

-위와 아래가 아니라 곁과 곁에서 소통과 연대의 밀도를 높여서 새로운/수많은 영토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

○ 교육/전문인력양성/역량

- 일자리 창출(진로 상담) 및 재무교육 강화

- 재무교육 또는 재무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 필요

- 가치에 동의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필요

- 자조금융 조직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확인 필요 : 신직업군 발굴,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량 평가

-활동의 확장에 대한 고민

-활동가 변경 등

-물론 국가/외부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님

-교육만이 아닌 성장에 대한 고민

○ 규모화에 대한 대응

- 관계 유지, 역량 강화,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요소 확인

- 조직 발전 경로 및 규모화 방식에 대한 논의(조합원 500명이 어떻게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가)

- 중앙회 설치(관리, 감사 업무), 지부에서는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 모색(키다리은행)

- 각 단위들이 공동의 법인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사업을 구성하고 규모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 →

공제조합연합회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준비

-빈고는 규모화에 대해 경계를 가지고 있다. 정확히는 규모화라고 말할 때 눈여겨보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경계. 눈에 잘 보이는 것들만 가리키게 되지는 않는가. 자산 규모. 조합원 규모. 수입의 규모.

-오기 전에 몬드라곤에 관한 책을 몇 권 읽고 왔다. 실제 몬드라곤이 어떤지 알기는 힘들지만, 90년대 이후로 접어들며 책에서 몬드라곤을 소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인상적이었다. 그 전까지는 몬드라곤의 운영 방식/조직 방식/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주목한다. 그 이후부터는 몬드라곤의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,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유지되는 것, 해외에 공장을 내고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주목한다.

-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.

-원리를 잃지 않는 것. 방법을 확대하는 것. 관계를 확장하는 것. => 운동으로서 지속하는 것. 을 유지하면 규모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본다.

-그러나 규모에 대한 예민함은 가져야. 규모가 달라지면 소통 방법 등이 달라지고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 불가. 새로운 방식을 쉬지 않고 찾아야 한다.

-지금까지 대응해온 방법. 해방촌->전국에 따른 텔레그램방 생성, 전체회의. 문제점.

-일원화에 대한 걱정. 지역적/가치적 금융의 다원화. 더 큰 연대.

+다녀와서 메모

주제가 한국의 관계 기반 자조금융의 사례 인지 원지여서 관계 이야기만 한참 하긴 했는데... 사실 이렇게 이야기되는 판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하긴 합니다.

주거빈곤계층이든 청년이든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그 사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? 관계는 그것이 관계-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 얼마나 긴밀하고 넓은 결국 개인-개인의 집합일 뿐이고 사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은데... SNS가, 심지어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상징적이지 않나 싶어.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니. 우리는 사회를 이제 팔로우와 팔로잉이라는 식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게 된 건가...하고.

아무튼 국가든 지역사회든 마을이든 그것을 책임지는 단위가 사라진 거고, 그 역할을 자조금융이라 불리는 (우리를 포함한)어중이떠중이ㅋㅋㅋ들이 책임져야만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자조自嘲적인 상황이지 않나 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...